

메타버스 시대를 눈앞에 둔 교회: '꿈의 교회와 C2C'의 탄생 사례 연구

현한나 주안대학원대 겸임교수

장기화된 COVID 영향은 우리의 지역 및 사회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교인들의 원하는 바에 상관없이 온라인 가상 커뮤니티는 교구 지역식구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이 되었다. 미디어는 그리스도 복음(2고전 4:7-9)의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생활에서 종합모델(Synthetic)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요즘 기독교인들의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시청은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이 기사는 신학적 성찰을 통해 현 집단 운동과 종합 교회의 모델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반스의 상황화 유형은 디지털 교회 또는 소위 "새로 태어나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Hirsch and Ferguson 2011: 39). 사이버 공간에서 미래 도처할 위기를 대비한 모델들을 위한 토대를 명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나 디지털 교회에는 여전히 더 많은 신학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의 많은 혼합적 형태들은 이미 메타버스 교회 발생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생겨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꿈의 교회의 변화 역사는 이러한 사례 연구로서 소개 된다.

I. 서론

캠벨(Campbell 2018:5)은 90년대 중반부터 종교와 미디어 및 사이버 공간과의 상호작용이 시작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종교학 학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쓰임의 정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화와 디지털 공간에 대한 도전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수리아(Tsuria 2015: 159)는 소셜 미디어 참여가 개인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왓츠앱(WhatsApp), 페이스북(Facebooks), 카카오톡(Kakaotalk)과 같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재창조하는 데 기여했으며 또한 온라인을 통해 교회 예전 참가자들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온라인 사용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삶의 차원을 찾는다. 반대자들의 부정적인 목소리는 사람들이 교회다움의 요소를 잊고 수용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릴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디지털 커뮤니티의 많은 반대자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삶은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과 혼합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단지 미디어의 도구적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클로에테(Cloete)가(2015: 3)가 말하듯 호의적이거나, 중립적 혹은 반대되는 세 반응을 소개한대로, 기술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가너(Garne)의 세 가지 신학적인 성찰에 기초하여,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신학적인 모델을 재조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세계에서 기술/디지털 문화는 세상을 재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해석될 수 있지만, 미디어 수단의 개발은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동시에 압제자와 해방자로 부정적으

로 묘사될 수 있다(Garner 2021:268). 학자들은 신학적 담론에 바탕을 둔 미디어 교회와 그것의 보다 진보된 모델인 메타버스 교회를 위한 단계 구성 또는 구별 가능한 도표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 모델이 미디어 교회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주로 제시되는데, 그것은 문화-복음이 각각과 관계에서 동등하게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교회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러한 교회는 다가오는 메타버스 교회 시대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기치 않게 코로나 시대에 많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들을 보게 된다. 새로 설립된 온라인 교회 혹은 디지털 교회를 정의하기 위한 역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신학적인 담론은 신학자들이 또한 이 새로운 교회 재건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쉬의 정의에 따르면, 사람들의 "지역간 이동"(Hirsch와 Ferguson 2011:38)은 온라인 교구/교구 사이버 또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견되지만, 이러한 모임이나 커뮤니티는 지역 교회에서는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COVID 19)를 거치는 동안, 새로운 집단 그룹은 기독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전 형태에서 벗어나 다른 교회로 전환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

II. 하이브리드 교회 모델 출현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견해

1. 종합 모델: 하이브리드 교회의 장점

새롭게 부상하는 사람들 운동은 베반스(Bevans)의 상황화 이론에서 차용한 '종합 모델'로 요약될 수 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지역 교회에 물리적으로 모이거나 교회 건물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형태나 오래된 교회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패턴은 주일 예배와 주간 기도 모임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내재되어 있다. 그들의 사회적 유대는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나 사이버 커뮤니티의 연결에서 구체화 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의 운동은 '이주적 디아스포라적 교인들' 또는 '가나안 교인들'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맥가브란은 초기 교인들의 운동을 하나님의 선교전략(Bridges of God)에서 먼저 묘사했다. 그는 1세기 최초의 유대인 집단이 인종적 편견이나 민족적 의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적었으며 오순절 부흥 이후 유대인들은 성령의 행위로 인해 변모했음을 설명했다. 성령의 노력이 없었다면,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움직임은 없었다.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사람 의식'이 아니라 '신의 의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운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새롭게 변모한 제자들은 예수를 바라보았다. 이 운동은 유대 민족 내에서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다른 민족적 배경들로 교회 경계가 넓혀졌다. 이 움직이는 집단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의식한 그들의 방향성을 초대 교회 때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위치한 곳이나 민족 역사는 그들에게 장벽이 더 이상 되지 않았고 덜 사소한 문제였다.

허쉬(Hirsch)는 이 운동이 사도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 역사 전반에 걸쳐 켈트 운동, 모라비안 운동, 현대 중국의 지하 운동 등 다양한 역사적 영역에서 초대 교회의 증식 운동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Hirsch 2011: 38). 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운동은 그룹

운동은 방향성이 정확했고, 따라서 신앙의 불변은 역사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변수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 유대 전통은 더 이상 교회의 증식에서 중심에 있지 않고 새로 형성된 공동체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웃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1세기의 신앙 전통은 21세기의 뉴미디어 및 디지털 문화와 여전히 연결고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올바른 방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복음과 문화의 종합 모델은 우리에게 우리의 관점을 둘 중 하나 또는 관계에서 둘 다와 관계로 바꾸도록 요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문화 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적 흐름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공동체 형태와 전통적인 형태의 오프라인 지역 교회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인간의 형태와 그것의 모순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미디어나 디지털의 사명을 통한 현대 집단 배가 운동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움직임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할 수 있다 (Niebuhr 2001: 120-121). 예수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견디고 그의 신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에게 종속시켰다. 성육신적 모델에 비추어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새로운 사도 운동'을 포괄할 수 있다.

종합 모델 교회의 긍정적인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형태의 중간 과도기적 교회는 새로운 변화와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개방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과 전통에서의 보편성은 간과되지 않지만, 이 종합 모델에서 복수적인 요소들이 더 환영 받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변환에 선 주체로서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 온라인 공간은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새로운 경험을 재현할 수 있다. 게다가, Z 세대라고 불리는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발명 이후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이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그것의 매체가 새로운 인식과 세계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의 하이브리드 교회 모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COVID)세대의 경우, 이 미디어 교회는 온라인 지배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며, 교회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생각하던 구세대와 달리 예배에 참석하고 미디어 커뮤니티에 가입하는데 추가적인 장벽이 없다.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 신세대와 구세대, 또는 신세대와 구세대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 수 있는가는 중요하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에서 떠나는 그룹은 (Packard and Hope 2015: 13-14)은 가상공간에서 이러한 새로운 참여 그룹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파카드는 교회에 지친 사람들이 제도적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만뒀고, "중도 포기 교인들" 또는 소위 "교회 난민들"이 되었다고 말한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의 필요성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함으로써 교회의 원래 형태와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의 사이버 공간 반대론자들의 논쟁은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형태의 믿음과 의식이 익명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교회의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임무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사도 회중이 다시 태어나고, 오래된 제도적 교회들이 지탱할 수 있는 오래된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도 시대가 온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오래된 기독교 형태는 현재 광범위하게 용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제 이야기가 된다. 사도적 회중이 다시 태어나고 제도적 교회가 지탱할 수 있었던 구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 사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오래된 기독교국가 형태는 이제 광범위하게 해체된다(Hunter 1996: 22-23). 코로나19로 인한 고령자들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교회에서 매일 또는 24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교회에 접속하고 있다. 교구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비추어 둘레(Dulle 2021: 1-6)은 지역 사역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미국 교회를 소개한다. 특히 노인 그룹과의 Zoom 모임은 지리적 범위의 장벽을 극복하게 한다. 교구민들은 외딴 곳에 산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롭고 혁신적인 미사, 성체, 성경 모임을 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목 방식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대신 농촌 지역의 인터넷 사용 범위에 도 불구하고 온라인 연결을 통해 더 많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목회가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많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등장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단적인 혹은 비교리적 형태의 교회들도 많이 탄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을 초월한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도적 교회는 선교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Covid의 한가운데 가상 공간과 새로운 사이버 연결은 차단된 상태와 위치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적 트랜지스터는 사람들이 메타버스 시대에 오래된 종교 패턴을 새로운 스타일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의 발명으로 미디어와 교회의 융합은 불가피하다. 교회가 메타버스 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양보하기 전에 전통적인 교회론과 선교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Missio Dei는 작업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시킵니다. 새롭게 밝혀진 가상 현실은 교회 지도자 그룹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세대는 의미를 만들고 문화를 구성하는 사이버 세계의 기호학에 익숙하다. 변화하는 이미지나 기호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으로 존재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익숙하다. 미디어 시대와 신세대 시대에 참가자들의 요구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문제가 되고, 방송의 오래된 요소가 갱신되고 신앙 기반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사이버 사회 및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새로운 디지털 수단이 등장한다. 그것은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징, 오래된 문학의 아이콘 또는 새로운 세계의 경험 수단에 대한 철학으로 채워질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교회 모델의 필요성에 비추어, 이 메타버스 문화의 특징은 중립적이거나 논쟁적, 즉 명시적으로 좋거나 나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여러 문화 플랫폼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오프라인-지역 사회와 통합하는 것이 디지털 교회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이다(Wagner 2016: 66). 그 결과 변화하는 메타 문화와의 빈번한 대화가 과거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관점에서 미디어/사이버 교회의 가치는 사람들의 새로운 움직임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오래된 커뮤니티를 대체하는 것과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잠정적 미래 종교 공동체 모델은 이미 마크 주커버그가 이끄는 메타버스 교회의 새로운 탄생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지역간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도적 교회는 선교 범위를 넓힐 수 있다. With 코로나 시대에 가상공간과 새로운 사이버 연결은 차단된 위치에 보조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적 전환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오래된 종교적 패턴을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스타일로 완전히 전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기술의 발명으로 미디어와 교회의 융합은 불가피 하다. 교회가 메타버스 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하기 전에, 전통적인 교회론과 사명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그 일을 시작했고 사람들을 이곳저곳으로 이동시켜나가고 있다. 새롭게 드러난 가상현실은 교회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신세대들은 사이버 세계의 기호학에 익숙해져 의미 창출과 문화 형성에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변화하는 이미지 또는 기호가 더 이상 수동적인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익숙하다. 미디어 시대와 신세대 시대에는 참가자들의 필요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게다가,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송은 의사소통의 중심적인 문제가 되고, 방송의 오래된 요소들이 갱신되고, 신앙 기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사이버 사회와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새로운 디지털 수단이 발생한다. 그것은 실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징, 옛 문학의 상징 또는 새로운 세계의 경험의 수단으로 채워질 수 있다.

혼합 교회 모델의 필요성에 비추어, 이 메타버스 문화의 특징들은 중립적이거나 논쟁적인, 다시 말해서, 명백하게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복수 문화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오프라인-지역 사회와의 통합이 디지털 교회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이다(Wagner 2016: 66). 그 결과, 변화하는 메타 문화와의 빈번한 대화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새로운 관점에서, 미디어/사이버 교회의 가치는 사람들의 새로운 운동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예전 커뮤니티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잠정적인 미래 종교 공동체 모델은 이미 마크 주커버그가 이끄는 메타버스 교회의 새로운 탄생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종합/하이브리드 교회의 단점

긍정적인 특징과는 반대로, 종합 모델은 유연성 때문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배적인 문화 집단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중력을 빨리 잃게 함으로써 그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상공간에서 자주 일어나는 매력이나 중독은 이 교회 모델의 위험성을 설명해준다. 최초의 메타버스 교회 지도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래 형태의 교회나 역사적 전통으로부터 후퇴하도록 이끌 수 있다. 자신의 신앙 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앙 공동체에 대한 배경이 얇은 신세대는 신앙의 본질적 토대를 버리고 새로운 사회종교 지도자가 복음의 색깔이 약화된 메시지를 던져도 이를 분별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공동체는 소속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통에서 쉽게 분리되어 버릴 가능성이 늘 있다.

조작이나 착취의 많은 요소들이 사이버 공간 문화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물질주의의 세속적인 힘에 의해 삼켜질 수 있음을 보게 된다. 디지털 교회와 달리, 메타버스 공동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열린 답변이 될지도 모르겠다. 추측하건대, 진정한 만남의 기회 부재로 메타버스 교회에는 개인적인 상호작용이 아예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아바타처럼 자신의 가상의 아이콘으로 존재하는 가상공간과 현실을 규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이 사이버 세상은

더 이상 게임 플레이어들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의 종교 집단에 의해 점령될 것이다. 놀랄 것도 없이, (Zagano 2021: 15-16)는 종교를 위한 가상 공간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고한다. 페이스북은 힐송(Hillsong)과 같은 거대 기업이나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 과 미국장로교단(PCUSA)와 같은 몇몇 교파들과 제휴를 맺고 이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교구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코비드 시대와 함께 오프라인 종교 관행이 매우 제한되면서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닐 스티븐슨은 1992년 소설 '스노 크래쉬'에서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으로, 사회 전체를 탈출하는 수단으로서 상상된 영역 메타버스가 오늘날 실제 이야기가 된다(Mark 2014: 702). 최초의 메타버스 교회가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인터넷 사업가인 마크 주커버그에 의해 시작된 것처럼, 기독교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SNS)의 합병은 2021년에 진짜 큰 이슈가 되었다. 페이스북의 한 임원에 따르면, Sheryl Sandberg은 모든 종교적 실체를 포괄하고 가상 현실로 소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증강 현실은 다른 형태의 종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것은 누구나 그들의 종교적 삶을 유지하고 인맥과 제자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재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게다가, AI나 빅 데이터는 개인이 몰입되어 있는 일과 개인화된 역사적 기록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의 참여도를 조사하여 추천할 만한 목회자나 정신적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교회 모습을 바꾸어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의 신성한 지역은 더 이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은 숭배하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신들도 창조해내며 불경스러운 장소들을 그들의 신성한 장소로 바꿀 것이다.

비록 정체성과 관계의 진실성이 이 새로운 제3의 공간 (Cloete 2015: 2)에서 문제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익명 멤버로서 현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 메타버스 교회는 현실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형 교회와는 다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공동체도 없이, 메타버스 교회의 새로운 프레임은 그들에게 증강된 사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실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오도록 고안되었다. 메타버스 교회가 전체주의적인 실체의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 종교적 실천도 그들의 동시대의 경험도 기독교 신앙의 상수가 될 수 없다.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신분을 자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자신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이버 공간은 가상 연결에서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색이나 인종적 경계는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인류의 기본적인 욕구가 높게 평가되고 뒷받침되는 해방자 모델(Praxis Model)교회이며, 그것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의 매개변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온라인 교회 공간에서의 진정한 연결과 구현이 곧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형성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오늘날, 정기적인 출석이나 종교 헌금의 빈도는 그들의 회원 자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교회를 나가기 그만 둔 사회집단(the dechurched)”은 미국 인구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총 38% 교회 안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9%는 교회에 다닌 적이 없고(unchurched), 29%는 과거 교인이었으나 그만둔 곧 가나안 교인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의 수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전통 교회에 가는 것을 그만둔 후에도 여전히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숫자이다. 이 사실은 아직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소셜 미디어와 대형교회들의 협력 관계를 통해 더 알려지고 있다. 이 새로운 가상 세계는 그들의

경계선으로부터 실제 경험을 더 확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기독교 가족의 일부로 새 공동체에서 그들 자신을 정의하려는 참여자들의 의지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거룩하게 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 참가자들을 신뢰하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다.

문화가 가진 변칙적인 영향은 문화의 흐름 아래에서 미묘하게 작용한다. 문화에 대항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델은 전통을 연결할 수 있는 연속성에 대한 약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 현재의 문화 유입을 인정하고 문화와 전통을 연결하기 위한 공통의 요소들을 발견하도록 한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제도적 관점에서 구더(Guder)는 지역적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함축된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며 "가시적이고, 유형적이며, 경험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단이어야 한다. (Guder 2000: 145). 이러한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특정 장소나 가시적인 공동체 형태가 없는 최전선에 있는 지리적 범위를 넘어선 신흥 디지털 교회들은 지역교회나 어떤 전통적 형태로 분류될 수 없다. 그것은 교회 정체성의 마치 중요한 요소가 부족하듯 보인다.

또한 구더(Guder)의 전통적 교회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역사회 문화로 인해 결정되는 구체적인 교회 형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와 국가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동체 형태를 지닌 사이버 공간은 오래된 제도적 교회 형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새로운 디지털 교회나 미디어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보금자리를 찾는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집단의 운동 방향을 "그리스도를 향하도" 인도할 수 있을까? 신흥하는 사람들의 집단 운동과 디지털 세계에서 초지역적 연결은 토착화 또는 맥락화에서 신학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종합모델의 교회 혹은 하이브리드 교회들은 현재의 현상과 전통의 낡은 형태의 중간에 위치하는 "길의 한가운데"(Bevans 2002:88)로 위치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문화적 요인, 새롭게 구조화된 시스템, 실제 사회의 유입을 배제하지 않다. 맥락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롭게 제공되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플랫폼은 종교적 시청자와 신뢰의 유대를 구축할 수 있고(Wagner 2016:62) 증강 사회와 현실 세계의 연결은 전통적인 지역 교회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융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하이브리드 교회의 본질은 메타버스 교회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교회다움의 요소를 잃고 부적절하고 세속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도피 습관과 사회적 참여의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기술 친화적인 삶과 사람의 전례 없는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더 크다. 그들은 역사적 교회의 사도적, 예언적 역할이 소셜 플랫폼에 의해 활성화될 수 없기에 디지털 모델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온라인 교회는 구교회 모델을 대체할 수 없고 실제 인물을 통해 성육신적 사명을 완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란 이유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디어 교회는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전통이 보존된 형태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교회는 미디어 교회 자체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동안 모든 온/오프라인교회가 가시적이고 유형적이며 구체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형태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 교회는 사람들이 가상 공간과 네트워크 형태로 시뮬레이션된 경험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비역사적이고 비전통적인 증강 공간과 현실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 메타버스 교회는 종합적 모델 교회인 미디어 교회로 분류될 수 없다. 대신, 신학자들은 각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실천 모델에 메타버스 교회를 분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성찰은 기술과 기술의 변형 모델을 해방자로 간주하며, 이는 물리적 세계와 사역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있는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갖고 단순히 미디어의 도구적 역할을 정교화하고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도 본다.

메타버스 교회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는 불협화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므로 뉴미디어 문화와 전통 사이의 긴장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교회 목회자는 인터넷과 뉴미디어 형식을 활용하는 "숙련된 네트워크 생태학자"로 간주될 수 있다(Garner 2021:269). 따라서 새로운 해방지(출애굽) 모델, 완전히 변형된 메타버스 모델은 미디어 문화의 몇 가지 위험한 요소를 경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디어 자체는 지역 교회와 가상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효율적인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집중하고 동등한 관심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교회 환경은 어느 한쪽/또는 문화가 아닌 두 문화를 존중하는 두 가지 유연한 형태로 미디어와 개인 친화적인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개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 새로운 교회 환경에서는 어떤 형태도 소홀히 하지 않고, 교인들의 페이스북 방문이나 SNS 메시지 남기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두 가지 사랑의 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가능하다.

III. 지역 꿈의 교회(Dream Church)와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C2C 미디어교회 사례 연구

1. 오프라인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의 탄생

꿈의 교회는 1993년 김학중 담임목사가 설립한 안산 지역교회로 출발했다. 새 안산교회는 창립 이래 2002년 새안산 레스포츠크교회로 교명을 변경했고 2007년 꿈의 교회로 개명했다. 그러나 꿈의 교회는 역동적인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며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 경로를 통해 미디어 교회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 결과 교회는 매주 2만 명 이상의 성도가 참석하는 초대교회로 성장했고 한국 광교에 위성교회를 확장했다. 김 담임목사는 개혁정신으로 꿈의 교회를 섬겨왔다. 그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지역 사회와 현안을 소통하며 극복했고 사회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꿈의 교회의 C2C 미디어 모델 개발에 영향을 받은 여러 교회 모델 중 지역 횡단 교회 개척에 채택된 모델 중 하나는 팀 켈러의 City to City 모델로, 이를 통해 미디어 교회 프로젝트가 전 세계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창립 초기부터 담임 목사는 교회의 세 가지 모토를 주장했는데,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이다.” 이 세 가지 모토는 교회 환경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부터 꿈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김 목사의 철학은 불신자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전통적인 교회 환경을 보다 사회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꿈의교회는 창립 28주년을 맞아 새롭게 구현된 미디어교회 모델을 출시했다. 온라인 교회는 나라와 나라를 연결(Country to Country),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City to City)를 의미하는 C2C라고 불렀다.

이 새로운 미디어 선교는 미디어 사역자 팀을 통해 가나안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중심 전략이 되었다. 오늘날 한국에는 약 300만 명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회나 교회 난민이 있다. 이 그룹들은 가나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는 교회를 만나간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교회에 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며 영적 유목민으로 남았지만 건축 교회에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 현재 남한의 300만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됐다. 꿈의 교회의 온라인 콘텐츠에 반응하는 이들은 기존 전통교회 틀에서 약간 벗어난 탈교회 성도들 곧 가나안 교인들이다.

김학중 담임목사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이를 고려했고, 이에 꿈의 미디어교회 C2C는 온라인 채널과 C2C 웹사이트를 통해 수백만 명을 타겟으로 삼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가상 집회와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되었다(2 Cori 4:7-9).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 및 양도가 가능해졌다. 오프라인 교인들은 해외 유학과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해외로 나가지만 온라인 공간에 자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인 목록에서 사라질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글로벌 한인 디아스포라로 참여인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30여년 간의 오프라인 꿈의 교회가 마침내 '온라인/미디어 교회'로 탈바꿈했다. 교회 리더십들은 교회의 전통적인 방식을 하이플렉스 또는 하이브리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프론티어 접근 방식과 결합하기로 결정했다. 둘 다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교인들은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회원이든 오프라인 회원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다. 처음에는 교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 보였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과 지역을 초월한 온·오프라인 교인과의 소통을 통해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멀어보였던 프론티어미션이 이미 시작되었고, 오히려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 합류하더라도 두 회원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 보인다. 요즘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드는 것이 매우 유연해졌다. 이 새로운 선교 이니셔티브는 움직일 수 있는 회중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영적 성장과 재정착을 돕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 탈교회, 가나안 성도들의 새 등지, '미디어 교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우편번호가 있는 모든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다. 수잔나 스나이더는 '우편번호 없는 신학'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했다. 즉, 우편번호 없이 정착지를 찾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다는 말이다. 이 우편번호 신학을 모티브로 하여 소위 교회난민이라 불리는 교회를 잃은 이들의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Packard and Hope 2015: 33) 가정교회는 찾지 못했지만 영적 필요가 있는 온라인 유목민 또는 '가나안 성도'의 필요가 간과된 것을 안 대다수의 꿈의 교회 목회자들은 이 새로 출범한 C2C 사역을 환영하며, 따라서 새로운 온라인 회원들은 대부분 교회가 없거나 떠난 배경의 가나안 성도들 출신이다. C2C교회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교인 등록 건수는 평균 50명 이상이다. 코로나 19 기간 동안 등록된 숫자는 아래 표와 같이 집계된다.

달별	새로 등록된 교인들 숫자
2020년 11월	124
2020년 12월	108
2021년 1월	132
2021년 2월	59
2021년 3월	51
2021년 4월	62
2021년5월	54

<표1 달별 C2C 미디어 교인 등록 수>

미디어교회의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등록 교인의 100%가 과거에 기독교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지만 대다수의 회원은 과거에 다른 지역 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이중 회원을 갖고 있다. 10월에 미디어교회 목사님과 또 다른 모임을 가졌을 때 6월부터 10월까지 평균 10-20명의 회원이 등록했는데 사회적 거리 제한이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등록할 가능성이 적었어서 등록인원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YouTube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었다. 3,000에서 지금은 6,000 이상이다.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가운데 신원 미상의 회원들이 점차 마음을 열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미디어 사역 목사들의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교인들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커밍아웃 크리스천과 이중 회원이라는 새로운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한 지방교회에서 장로로, 또 어떤 사람은 지방 교회의 정규 교인으로 지내다가 실망하여 물러났다. C2C 교회는 주로 '수평이동적 성장'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C2C의 특성은 Felt Need 전략으로 정의된다. C2C 미디어 교회는 온라인 회원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지명된 목회자들은 교회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그들의 필요에 맞추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 온라인 교인들은 전화로 직접 목회자의 기도를 원하든, 간접적으로 공문을 보내기를 원하든, 문자나 이메일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그들은 응답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도 요청을 하거나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교회의 장점 중 하나는 계좌로 이체된 헌금이 매주 투명하게 보고되고, 성경구절로 확인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오프라인 교회에 헌금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나 미디어 교인들은 헌금에 대한 피드백을 '잘 받았다'는 식으로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헌금이 잘 전달되었나 여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십일조와 헌금을 보내고 있다.

미디어교회 목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요즘은 기존 참가자들에 비해 약 10~200만 명의 회원들이 유튜브 채널 서비스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어 2020년 12월 C2C가 꿈의 교회 온라인교회로 출범하게 되었다. 온라인 교회는 온/오프 사역을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이 All-Line 온라인 교회가 되었다.

안산 꿈의교회는 현지 지역교회 특성이었으나 이제는 예배 시간과 교회 건축이라는 전통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더욱 글로벌해졌다. Church to Church, City to City, Country to Country의 전략이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12월 첫째 주에 하루 평균 30~40명의 회원을 등록했다. 이제 총 460명 정도가 있고, 10월까지의 미디어 교회에만 총 800여명의 등록 교인이 있다. C2C 미디어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한 영적 상담을 함에 따라 온라인 교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활동을 환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선교 전략을 배우기 위해 등록한 지역 교회의 일부 목사들을 알아냈다.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데 지역 교회에서 자신들의 스케줄과 필요에 따른 예배시간이 맞지 않자 미디어 교회에 등록했다. 그들의 숫자는 사실 우리의 추정을 초월한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많은 교인들이 C2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 채널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고 있다.

정오에는 온라인 예배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유튜브로 주일예배를 하면 평균 2500명이 참여하는데 요즘은 8000명 정도 된다. 온라인 예배를 먼저 끌어들이는 요인이 있고, 예배 시간이 단축되고, 특별송, 무거운 장문의 기도 등 불필요한 부분이 모두 줄어든다. 이전 서비스 주문에. 설교시간은 약 30분 정도 단축되었으며, 카메라는 움직이는 인물과 생생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앵글을 변경하여 청중들이 주의를 잃지 않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혼합된 버전과 하이브리드 예배 스타일에 가깝다. 물론 세례와 성체성사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김 목사가 대표하여 영성체를 이끌었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모였다. 온라인 성찬은 이제 더욱 대중화되고 있으며, 성찬 키트가 회중의 육체적 참여를 대체했다. 대신 성찬식을 위한 기부금은 지역에 있는 십대 구금 시설 중 한 곳으로 보내졌다. 꿈의 교회는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위해 'Covid-Conscious'에서 'God-Conscious'로 초점 전환했다.

성경의 내용과 큐티 자료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계되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교인들의 요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도 바울이 기꺼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되고자 했듯이(고전 9:20-22), 미디어는 미전도 그룹을 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Hunter 1996: 58). 주로 30대로 구성된 젊은 목회자 그룹인 미디어교회 팀 사역자들은 미디어 교인들의 장례식, 결혼식, 유아세례 및 기타 행사를 사역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 미디어 교회의 이러한 함정은 목회자들을 "네트워크 생태학자"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물리적 방문을 통해 모든 교인들을 방송하고 참여시키는 데 동등하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미디어 목회자 팀에서 정확히 발견되지 않았다. 미디어교회 사역자들은 SNS를 통해 24시간 라이브 방송 일정을 짜는 등 미디어 교인들의 문의와 요청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또한 C2C 온라인 교회의 온라인 은행 계좌로 현금을 보낼 때 미디어 팀 사역자를 통해 역으로 현금자에게도 확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온라인 교인 세금공제 문제의 경우, C2C의 특정 계좌번호에도 불구하고 투명미디어교회 계좌는 오프라인 교회 계좌로 연결된다. 따라서 올라인(All-Line) 교회나 미디어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과 이점을 동시에 갖다.

어느 쪽이든, 오프라인 교회는 더 이상 모든 교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형식은 전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온라인 회원은 전형적인 교회 기독교인에게 저항한다. 헌터(Hunter)는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 언급했다(Hunter 1996:59). 따라서 온라인 회원 자격을 동시에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새로운 개척자 모델인 온라인 교회도 목회자의 삶의 통로가 되기 위해 개인의 보살핌과 신체적인 방문이 필요하다. 교회는 먼저 사람들에게 인락한 곳, 신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초대 교회를 보면 고대 오이코스, 골로새서, 에베소서 같은 가정교회는 제도적 형태가 아니었다. 대신 그 가정은 초기 기독교인의 실제 상황이었다(Gehring 2000:291). 가정 교회와 가족에 대한 이 은유는 교회 활동에 더 분권화되고 유연하게 참여하기를 선호하는 온라인 회원에게 더 적합하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혼합된 생활 방식을 살 때 두 교회 형태가 존재하고 협력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래 모델에 대해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교회 어드벤처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교외에서 도심까지, 젊은 세대에서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하이플렉스(hyflex) 또는 하이브리드 컨텍스트에서 나타나 다양한 형태이며 이들이 겨냥한 세대도 다양하다. 나이가 들거나 새로운 집단 운동이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혼합 사회 혹은 새로운 사회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미디어 플랫폼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러한 온라인 사이버 교회 모델은 비공식 가정교회 환경, 레스토랑과 카페, 현대 예배 환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교회를 건물 그 자체로 여겼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환경이 달라졌다. 한국에서는 교인의 20% 또는 10% 미만이 예배 건물에 실제 참석한다.

코로나19 초기에 목회자들은 교회 건물의 빈 방을 지켜보는 것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 환경을 재건하고 성례전을 포함한 교회 전통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교회 환경에서 뉴노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창의적인 신학적 과제가 필요하다. 미래의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지역교회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익숙해졌다. 사람들은 위험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온오프라인의 이중 문화가 익숙한 사람이 되었고 온/오프라인 모든 공간에서 공존한다. 교회가 더 이상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새로운 개척자들은 오래 닫힌 문이 열리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새로운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디어 교회의 시작이었고, 지도자들은 교회의 새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새 마음으로 도전하는 대신 이전 사고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펍박으로 예배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와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1세기 선교운동의 시작을 생각하면 코로나 시대에 통행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자 제한 등의 새로운 수단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새 역사를 시작한 한국 교회 중 하나가 바로 꿈의 교회이다.

꿈의교회는 종이 주보를 사용하지 않고 매주 디지털 게시판을 발행하는 미디어 미션을 통해 환경을 돌보는 청지기의 영역 또한 미디어 주보를 통해 확장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디지털/온라인 게시판을 발행할 필요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Covid-19가 발생한 후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겨우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 인쇄된 게시판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었다. 교회 게시판을 사용하여 주간 공지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수신자에게 알림을 전송함으로써 젊은 세대는 일요일 아침에 수신하는 것을 훨씬 편안하게 느낀다. 대부분의 종이 게시판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일단 회중이 성소를 떠나면, 그 유용성의 대부분이 없어진다. 디지털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새 알림을 보내기 쉽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요일에

성전 자리에 앉거나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더라도 동일하게 교회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다. 미디어 주보를 만드는 이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게시판의 이미지를 올리는 대신 미디어 게시판을 활용하여 현재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 업데이트에 관심을 갖고 미디어 교회의 감동적인 영상 콘텐츠로 생생하게 예배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음악이 나오는 영상도 함께 올립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회중과 새로운 연대를 만드는 것은 꿈의 교회 전략 중 하나이다. 미디어 교회 사역자들은 온라인 회중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더 검색 가능한 토론을 찾을 수 있도록 디지털 게시판을 맞춤화했다. 오프라인 참석자를 포함한 교인들도 온라인 게시판을 사용한다. 더 이상 인쇄된 주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디어 교회 회원들은 신속하게 피드백을 받아 우리의 지도자나 목회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 온라인 회원들과 연결할 수 있다. 예전에 교회 홈페이지가 회원들의 소셜 플랫폼으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화가 원활하게 흐르고 회원들이 알림과 SNS 답글에 익숙해지면서 카톡 성경방 구축이나 줌 제자도가 뉴노멀로 정착되었고, 공개 또는 비공개 대화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콘텐츠와 공지 사항은 쉽게 백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들은 항상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교인은 온라인 교인이 된 것에 대해 더 안심하고 미디어 교회에서 빠르게 교회 활동을 시작하고 있어 ‘교회 안나오는’ 혹은 ‘가나안 성도들’ 선교를 위해서 탁월한 솔루션이 되어 미디어 게시판 또는 YouTube 채널이 이용되고 있다. 예배 일정은 더 다양하여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을 제공하며 회중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허용하고 온라인 게시판은 인쇄된 유인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선교의 한 측면임을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미디어팀과 교회 기술지원팀도 협력하여 미디어교회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유튜브 참여자나 온라인 게시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요즘은 모든 교회 지도자와 사회가 모두 지역에서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 시급한 사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 사회가 문제와 씨름할 때 교회도 고통을 받는다. 선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장에서 더 많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위험하고 도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다. 생태 사회 시스템을 돌보는 이 중요한 작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주권으로 돌리고 세상이 우리 회중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번성해야 한다. 김 목사는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수많은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선교 사업으로 미디어 사역을 추진했다. 바울이 현실을 인정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필요에 따라 선교한 것처럼 현실에 맞는 선교 전략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여기에서 시작된 미디어교회이다. 미디어교회는 시대의 요구이다. 다른 교회들은 상황이 바뀔 때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교회는 물리적 현실의 한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며 교회 환경을 재창조하여 장벽을 허물려는 시도이다.

미디어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꿈의 교회의 목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 미디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써야 할 것은 예배이다. 꿈의 교회는 온라인 최고의 예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할 계획이다. 주일예배 외에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 느헤미야기도회가 모두 생중계된다. 최근 미디어 C2C교회가 유튜브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담임목사의 설교, 찬양과 예배의 연속, 성경 프로그램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정착하기를 거부하는 개인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꿈의 교회는 매일 가정예배, '아몬드' 등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설교도 좋다. 골방 기도회, 오늘 나를 만든 찬양의 의미 오만찬, 성도들을 찾아가는 날 등의 내용이 있다. 단순히 온라인 예배를 방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 회원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미디어 사역에는 경계와 울타리가 없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들을 만날 수 있다. 언론사역은 담임목사의 프론티어선교 철학에 부합한다.

오프라인 교회에 미디어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였다.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은 그의 설교가 수백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선언했다(Steiner 1996: 15). 김학중 담임목사는 과거에 교회를 떠난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미디어 사역은 일요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단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실행 가능한 도구가 되었다. 미디어 자체는 중립적이고, 우리의 적이나 친구로 해석될 수 있다(Steiner 1996:15). 허쉬(Hirsch)에 따르면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의제를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사고(Either/or)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나 오래된 교회 형태 중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갖게 하지만 둘 다(Both/and)를 수용하려는 사고는 새로 등장하는 하이브리드 교회는 예전 형식과 새로운 형식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Hirsch 2011:41).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가운데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방법도 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교회는 미디어 사역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고 집중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3. 모판심기 선교 및 시소(see-saw)전략

첫째, 온라인 사역은 조만간 다른 사람의 밭에 이식될 수 있는 모판을 가꾸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미디어 C2C 사역은 불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아닌 가나안 성도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수평이동식 성장 또한 비록 개종을 통한 성장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한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통계에 따르면 미디어 교인 800명 중 약 80%가 이중 교인으로 적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24시간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사회 관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로컬 연결을 유지한다. 베넷(Bennett)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쓰고, 인쇄하고, 방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화 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출판물과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실재와 선형 방식을 통해 현재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시뮬레이션 공간의 수단으로서 메시지는 개인의 삶에서도 전달되고 증폭될 수 있다(Bennett 2016: 89). 그러나 최종 목표는 그들을 디지털/미디어 교회 모판에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거나 치유된 교인들을 본 교회로 돌려보내고 디아스포라 선교지에 이식하는 것이다.

최근에 캐나다로 이주한 이전 회원 중 한 명은 여전히 꿈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 미디어 교회에 등록하여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온라인 자료들을 통해 영적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 농사에서 모판에 성공하면 연이은 수확도 결실을 맺는다. 묘상 준비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토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역교회를 대신하는 미디어교회는 전체 거두는 과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파종기의 역할을 한다. 디아스포라가 도처에 있고 이주민이 흩어져 있지만, 교회가 온-오프라인을 모두 영성수양의 모판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 공동체를 떠날 필요가 없다.

미디어 팀 사역자의 보고에 따르면, 새로 등록된 미디어 교인들은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미디어의 장점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미디어를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디어 교회에 새 교인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미디어에 대한 이러한 논쟁적인 견해는 자원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 교인들의 필요를 무시할 수 있다. 지금은 밭 전체가 아닌 모판으로 심고 물주기를 할 때이다. 묘목은 정월이나 밭에 이식될 때까지 통제된 환경에서 더 큰 어린 식물로 자라난다. 해외순회가 대부분 불가능해지면서, 해외 선교가 중단되어 선교를 하기 어려운 것 같다. 나이든 사역자들은 병들고 코로나로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앞으로 새로운 수단을 통한 사역에 희망이 있다.

묘상을 잘 가꾸면 향후 농사기에 투입되는 관리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파종은 작물의 성장의 필수 과정으로 간과될 수 없다. 우리 교인의 20% 또는 이중 회원의 50%가 들판에 심을 때가 되면 모두 넓은 밭에 심어질 것이다. 때가오면 선교와 교회 개척자들은 해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해 모든 사역을 그만두지 말고, 대신 이 뉴노멀 트렌드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코디네이터로서 '나의 교인'도 없고 '너희 교인'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배워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농업에는 다양한 과정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목회자들이 묘목을 심고 밭아하는 씨앗의 수를 늘려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다.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후에 거두리라(요 4:38) 우리가 무가치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곡식 일에 힘쓰는 '남'은 할 일을' 다 한 것뿐이다'(눅 17:10)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묘종 심기 모판 사역이 코로나19의 한가운데 현대 교회를 비교한다면,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과 극심한 핍박의 교회 환경에서 교회는 이러한 모판 심기 사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림1 미디어 교회의 묘심기 모델- 비유적 모델]

둘째, 미디어 사역은 교회 사역자들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플랫폼이다. 미디어는 새로운 영적, 사회적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다. 반스(Vance)의 민족지학적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했다. 그들의 영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은 영적 정체성의 공동체내 계층을 개발하고 미전도 그룹을 포용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의 내부자가"된다(Vance 2016: 43).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계층의 차원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개인 계층, 제정 계층, 관계 계층이 모두 미디어 선교를 사용하여 엮여있다(Vance 2016: 44). 디지털 프로그램의 청취자와 시청자는 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걸쳐 문화적 또는 종교적 패턴을 보여주고 미디어 교회는 미디어를 통해 미전도 종족의 수백만 그룹에 도달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모든 플랫폼을 통해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를 위한 성경 콘텐츠의 공급자가 된다(Steiner, 2016:8-9).

파카드와 호프(Packard와 Hope)는 그 사람들이 이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고 외상 후 구조적인 교회로부터의 정서적 박해와 억압을 겪었다고 설명했다(2015:17-19).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목회자들에게 이름을 밝히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지만 여전히 영적 차원에서 능력을 찾고 있다. 미등록 교인 중 상당수는 신원 미상이지만 매주 평균 2500-8,000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해 주일예배를 드린다.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한 후 평균 200-300명이 YouTube 채널에 들어와 시청을 한다. 이미 실명으로 등록한 10-20명 정도의 미디어 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회원과 지역 주일예배 전후 또는 교회의 어떤 조직 유형에도 참여하지 않고 주일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참석자들로 대륙을 넘어서 교회는 채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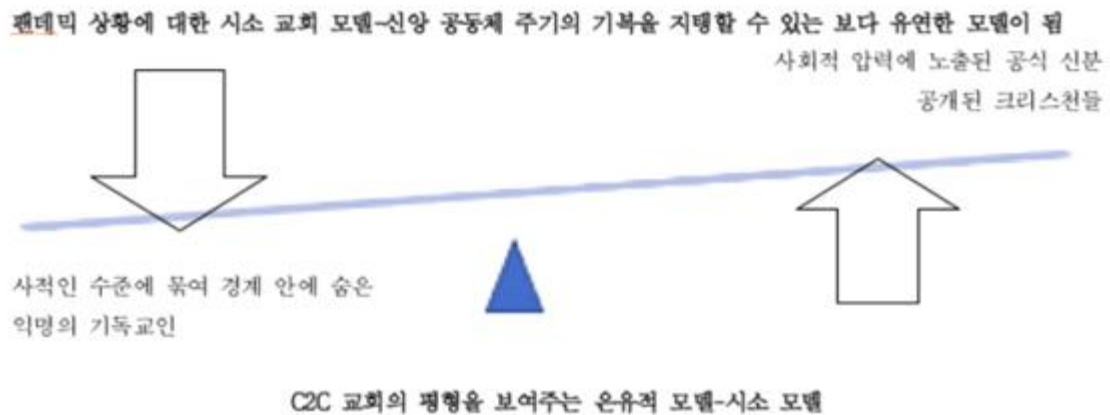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그룹에 연결하는 방식은 틀에 박히지 않고 새로운 것 같다. 또한 온라인 교회 구조에서 계층이나 특정 직책이 없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을 할애한다. 온라인 교회는 모든 연령대의 신앙인들이 편견이나 교회 순위 없이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는 모든 회원들의 참여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때때로 지방 교인들의 장로들도 쉬는 시간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예배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것이 예전보다 수월해졌다. 예전에는 교회 참석이 그들의 믿음이 선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교회의 계층화되지 않고 유연한 구조는 성도들이 아이들이 시소 위에서 노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 교회는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사회의 관계에서 많은 외상 발달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오늘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청중이나 온라인 참석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압력 없이 익명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 그룹과 SNS를 통해 자신을 식별한다. 이 제3의 공간에서 성도들은 새로운 미디어, 전자 또는 디지털 버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확대하고 정체성을 확장하는 것 같다. 이 미디어 사회에서 익명의 신원은 서로를 다시 연결하고 모든 연령대의 신앙이 소그룹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기독교 독서 동아리, 성경 읽기모임, 교리 공부모임, 기도회 등 주제별로 평신도 남녀가 온라인 셀 동아리 및 그룹을 운영도 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사역자들이 마련했지만 온라인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셀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권리가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 및 공지 사항은 개인 연락처가 아닌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목회자들은 그 교인들이 외부 압력에 과민하고 교회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가 부여한 순서나 미리 지정된 일정에 따라 교인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등록된 회원 중 많은 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오에 평균 2700명의 회원이 전문 미디어 서비스를 시청하고 있다. 또한 이미 등록한 사람들도 온라인 서비스에 참석하는 특정 시간과 함께 예배 참석에 있어서 유연성을 선호한다. 전통적인 사역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다르고 특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회 구조에는 높거나 낮은 지위에 대한 순위가 없다. 미디어 교회 문화에서 지역 교인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은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열린 문 역할을 하므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자유롭게 교차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관리하기 쉽다. 이 경우 예배 참석빈도나 성경공부의 빈도로는 그들의 믿음이 선한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계층화되지 않고 유연한 미디어 교회 구조는 아이들이 시소 위에서 노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소는 지레의 일종으로 긴 대들보에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인은 대들보의 양쪽에 각각 배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서비스 측면에서 사회적 압력이 가중되면 그 숫자는 급격히 떨어지고 교회 출석은 코로나바이러스 규칙에 의해 제한되며 때로는 그라운드 제로를 가리킨다. 참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렛대의 반대쪽이 위로 올라가 온라인 서비스 빈도가 역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하이브리드 미디어 교회는 외부인이 보기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불안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동하는 교회는 현재 고정되지 않은 형태나 유연한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미디어 문화와 코로나 사태는 제도적 교회를 플랫폼형으로 변화시켰다. 시소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 경우 은유적으로 예수를 의미하는 받침점이라는 축에 긴 대들보 혹은 지렛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와 코비드-제한은 한쪽으로 중력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소는 기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한다. 이 시소 모델은 전통적인 교회 유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안전한 보금자리로 우리 교회에 계층적 기둥과 물질적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퉁이돌이신 예수님 외에는 정착지가 없는 것 같다. 이제 교회는 네트워크 허브가 되어 구심점 역할을 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지고 모이고 있다. 문화적 형태는 변하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지속 가능하다.



[그림 2]

IV. 결론

종합적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집단들의 운동은 오랜 전통의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 토착화 과정에는 신앙에 기반을 둔 공동체도 포함될 수 있으며, 더욱이, 그들의 뉴미디어의 중요성도 미디어교회 운동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좋게 평가되고 경시되지 않는다. 반문화적 모델인 선교적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교회는 설 자리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전통에 대한 관점은 현재의 연속성과 과거의 변화를 동시에 허용하는 지역 사회와 권위자들에게 의해 지지되었다. 최근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같은 변화는 종교 전통 내부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아문드센

(Amundsen 2016: 258-259)은 인간 사회 발전의 역사를 통해 종교는 대체로 사라질 운명이었다고 지적한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의 새로운 도래가 곧 교회가 체현의 정당한 근거를 재검토할 시간을 조정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체화의 문제는 신학적 성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Cloete 2015:7) 학자들은 신학적 답을 열심으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집단들의 움직임은 항상 교회의 전통과 새로운 규범을 재정립했다. 종합 모델은 두 가지 관점의 중요성을 다 유지하면서 신학적 담론에서 미디어에 관해 낙관적인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신학적 성찰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새로운 문화 공간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대리인의 수단으로 보는 것을 반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온라인 교회의 정체성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한다. 내부 커뮤니티나 온라인 네트워크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만큼 실용적이고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Golan 2018: 177),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통합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본 논문은 기존 공동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메타버스와 미디어 교회의 경계를 만들고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교회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 종교계에 남아 있는 긴장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Allan, Joe (2021). Mark Zuckerberg Is Planting The FirstChurch Of The Metaverse
<https://thefederalist.com/2021/08/06/mark-zuckerberg-is-planting-the-first-church-of-the-metaverse/>
 (Accessed 5 October 2021).
- Amundsen, Arne Bugge (2016). "Religion as an Agent of Change- Concluding Remarks." In PerIngesman, eds., *Religion as an Agent of Change: Crusades-Reformation-Pietism*. Leiden, The Netherlands: Brill, pp.257-270.
- Bennett, Stephanie (2016). "The electronic church goes online: evangelical identity and technology" in Mark Ward, eds., *The electric church in the digital age*. Santa Barbara, CA: ABC-Clio.

- Bevans, Stephen B. (2002). *Models of Contextual Theology*.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 Campbell, H.A. (2021). "Community" in H.A. Campbell, eds., *Digital religion: Understanding religious practice in new media worlds*. Abingdon, England: Routledge, pp. 3-67.
- Claerbaut, David (1983). *Urban ministry*.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
- Cloete, Anita L. (2015). "Living in a digital culture: The need for theological reflection." *HTS Theologese Studies/ Theological Studies* 71(2): 1-7.
- Garner, Stephen (2021) "Theology and the new media" in H.A. Campbell, eds., *Digital religion: Understanding religious practice in new media worlds*. Abingdon, England: Routledge, pp. 253-256.
- Golan, Oren Community: dual production for dual publics: Chabads inward and outward online presence
- Graham, E. (2009). "Being, making and imagining: Towards a practical theology of technology." *Culture and Relig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0(2): 221-236.
- Grimshaw, Mark (2014). *The Oxford Handbook of Virt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702.
- Guder, Darrell L. (2000). "Ch 7: Converting the Church: The Local Congregation." In Darrell L. Guder, eds., *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Guichun Jun (2020). "Virtual Reality Church as a New Mission Frontier in the Metaverse : Exploring Theological Controversies and Missional Potential of Virtual Reality Church." *Transformation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37(4): 297-305.
- Heidia. Campbell and Ruth Tsuria (2021).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digital religion" in Heidi A. Campbell and Ruth Tsuria, eds., *Digital Religion*. Abingdon, England: Routledge.
- Hirsch, Alan and Dave Ferguson (2011). *On the Verge: A Journey into the Apostolic Future of the Church*.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
- Hunter, George G. (1996). *Church for the unchurched*. Nashville: Abingdon Press.
- Hutchings, Tim Community: Stillness on the hillside: worship online with British Quakers.
- Keller, Timothy, Tom Parks, et al. (2012).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 McGavran, Donald A., (1957). *Brides of God*. London: World Dominion Press.
- McGavran, Donald A., (1965). *Church Growth and Christian Mission*. New York: Harper & Row.
- Niebuhr, Richard H., (2001). *Christ and Culture*. San Francisco: Harper Publishing.
- Packard, Josh and Ashleigh Hope (2015). *Church refugees: sociologists reveal why people are done with the church but not their faith*. Loveland, Colorado: Group publishing.
- Radde-Antweiler, Kerstin (2021). "Embodiment" in H.A. Campbell, eds., *Digital religion: Understanding religious practice in new media worlds*. Abingdon, England: Routledge.
- Snyder, Susanna (2011). "Encountering Asylum Seekers: An Ethic of Fear or Faith?",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4(3): 363.

- Steiner, Mark Allan (2016). "A research agenda for the electronic church in the digital age" in Mark Ward, eds., *The electric church in the digital age*. Santa Barbara, CA: ABC-Clio.
- Tsuria, Ruth (2021). "Identity: Empty The Pews: Ex-evangelicals' identity on Twitter" in Heidi A. Campbell and Ruth Tsuria, eds., *Digital Religion*. Abingdon, England: Routledge.
- Vance, Deborah Clark (2016). "The flesh and the spirit: communicating evangelical identity via 'Christian Radio'" in Mark Ward, eds., *The electric church in the digital age*. Santa Barbara, CA: ABC-Clio.
- Wagner, Philip E. (2016). "And on the eighth day, God created TBN: evangelical television in the digital age" in Mark Ward, eds., *The electric church in the digital age*. Santa Barbara, CA: ABC-Clio.
- Wessels, B. (2010). *Understanding the Internet: A socio-cultural perspective*, Palgrave MacMillan, New York, NY.
- Zagano, Phyllis "Virtual reality and the coming Catholic Metaverse" National Catholic Reporter <https://www.ncronline.org/news/opinion/just-catholic/virtual-reality-and-coming-catholic-metaverse> (Accessed 1 October 2021).

Abstract

The prolonged Covid effects rapidly changed our local and social environment: whether churchgoers wanted or not, the online virtual community became a third space for multitudes of parishioners. Media has become not only new vessels that can contain the treasure of good news of Christ (2 Cori 4:7-9) but also create synthetic model churches for religious life, so watching YouTube Livestream of Sunday service becomes a new normal for Christians nowadays.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current people's movement and the hybrid churches' model through theological reflections. In Bevans' contextualization types, the synthetic model enables our understanding of digital churches or so-called "verge churches" (Hirsch and Ferguson 2011:39). There still need more theological discourses on media or digital churches to explicitly provide foundations for verge models of future ministries in cyberspace; however, many hybrid forms of the new church are spawned on the verge of Metaverse Church. In this paper, Dream Church's transformative history is introduced as a case study of church evolution.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메타버스 시대를 눈앞에 둔 교회: '꿈의 교회와 C2C'의 탄생 사례 연구	발표자	현한나
		논찬자 (소속)	김철수 (조선대 교수)

시의적절한 발표를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신 발표자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온라인의 환경과, COVID-19의 발현과 발달의 과정에서 교회가 사회에 끼치게 된 다양한 영향, 그리고 소위 MZ 세대를 비롯한 사이버 친화 세대의 부상,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공적이거나 혹은 사적인 이유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하여 갖게 된 반감으로 신앙생활을 유보하게 된 소위 '가나안' 성도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팎의 상황들이 급격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면서, 물리적인 교회의 의미와 기능들이 상당 부분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와 사회 사이의 민감한 관계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통해 현재 우리의 교회와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서 1993년 안산지역에서 출발한 “꿈의 교회”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미디어 교회’를 소개하시고, 그를 통해 메타버스 시대를 눈앞에 둔 기독교 교회의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소 긴 호흡으로 작성된 이 발표문은 “꿈의 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교회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와 그에 대한 기민한 대응, 그 대응에 대한 기성교회나 교인들의 반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긍정적, 부정적 예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질문이나 불만에 대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매우 깊고도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혼합된 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을 역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양육하여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한다는 ‘미디어 교회’의 전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속의 가치에 물든 성도를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교회로부터 멀어져가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나치게 세속화 되어가는 모습은 아닐까요? 둘째로, ‘미디어 교회’라는 ‘모판’이나 ‘놀이터’에서 양육을 받게 된 소위 ‘상처 입은 성도’ 혹은 ‘가나안’ 신자들이 물리적인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나 전도 혹은 봉사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미디어 교회’가 개인과 개인의 물리적 접촉이 없는 순수 가상 세계에서의 아바타들의 모임인 ‘메타버스 교회’로 종결된다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과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 우문들에 대한 현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눈빛을 교환하고 신체적 접촉을 교환하고 더 나아가 마음을 교환하는 가운데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참 성도가 되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순수한 ‘온라인’ 활동으로 구성된 ‘미디어 교회’의 예배와 교육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의 과정들이 체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여쭙보고 싶습니다.